

화 평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려면 마음의 죄악을 다 버리고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민 성도는 신중 플루 두렵지 않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죄의 담을 회개하고 기도를 올리면 만민 성도는...

열심히 섬기다보니 '왕'이 되었습니다

신문 전도왕, 당회장님 저서 다독왕, 말씀 퀴즈왕 등 열심히 섬기다보니 어느새 제인자가 된 성도들의 신앙생활 기록.

안데스 산맥 구석구석 "예수 믿으세요"

남아메리카 페루 고산지대인 안데스 산맥 오지에서 약조건을 무릅쓰고 선교하는 이재호 목사, 무안 단물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중국 여성 등 2명의 신앙고백

만민뉴스

MANMIN NEWS

제403호 2009년 11월 1일 (주간)
교회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일에 일하는 당신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빛과소금선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

빛과소금선교회가 지난 10월 28일(수) 오후 9시 30분, 영동성전에서 창립 24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빛과소금선교회는 유통업과 요식업 종사자로 주일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 신앙을 지키며, 주변을 복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빛과소금선교회는 1985년 10월, 7명의 성도로 시작했다. 초창기에 장소가 없어 백화점 인근 교회나 교회 버스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빛과소금선교회 회원들의 신앙 열정은 오늘날 교회 곳곳에서 쓰임받는 많은 주의 종과 일꾼들을 배출했다.

현재 유통업 1, 2선교회와 요식업 선교회를 비롯해 대전, 창원 등 지방 대도시 유통업과 요식업계까지 선교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는 저녁 9시와 11시, 두 차례 있다. 하루 중



왼쪽 사진은 장소가 없어서 교회버스 안에서 예배드리던 초창기 시절, 24년이 지난 현재 강남구 대치동에 '빛과소금선교회' 자체 성전인 영동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지난 10월 28일 오후 9시 30분, 창립 24주년 기념예배)

일 일하느라 몸이 고된 시간이지만 회원들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누구보다 뜨겁다. 수요일은 찬양예배로 드린 뒤, 간증 및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금요일에는 본당에서 드리며, 매일 밤 화상을 통해 우리 교회 다니엘철야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 회원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로부터 증거되는 생명력 있는 말씀과 놀라운 하나님 권능이 참된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고 말한다.

롯데 백화점 내 롯데 카드사에서 근무하는 송유진(37세) 집사를 비롯한 10명의 빛과소금선교회 회원들은 주일이면 평소보다 일찍 출근

하곤 한다. 근무에 앞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다. 주보 말씀을 나누고 녹음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받는다. 한 주간 업무와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심지어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다. 화를 냈던 고객으로부터 "나중에 좋은 데 시집 갈 거다"라는 칭찬을 듣기도 한다. 때문에 회사측에서 선정하는 '우수 친절 사원으로 뽑히는 경우도 많다. 회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

며 얼굴만 봐도 미소가 절로 자이니 때문 가족보다 살갑다.

양재동에서 여성의류매장 '우바'를 운영하는 신영주(45세) 집사는 사회 초년병 시절, 빛과소금선교회에 처음 왔다. 그녀는 자신을 반겨주는 빛과소금선교회 회원들의 따스한 사랑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백화점에 근무한 뒤로 주일을 지키지 못해 곤고했는데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말씀도 좋았다. 사회 생활하느라 얼어붙

은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님들과 직원들로부터 "아가씨가 친절하고 편안해서 좋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다가 마구 흠어 놓고 그냥 나가는 손님을 대할 때에도 "다음에 또 오세요.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원하시는 물건을 꼭 갖다 놓을게요." 하며 미소로 돌려보낸다. 최근에는 평소 좋게 보시던 사장님의 배려로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녀는 "직업이 직업임에도 세상 물질주의에 취하지 않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데에는 빛과소금선교회의 도움이 컸다."고 말한다.



교회 행사 시 해외 손님 접대를 위해 봉사하는 빛과소금선교회 요식업 회원들과 봉사자들

세계 선교 담당할 MMTC 훈련생 모집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에서 20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성결의 오중복음과 권능을 전하며 세계 교구화에 이바지 할 MMTC의 20기 훈련기간은 2009년 12월 5일부터 2010년 3월 29일까지이다. 실천 설교법과 오중복음, 교회사, 신구약개론을 비롯해 국제 매너, 선교사의 자기관리와 가정사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해외 선교사를 초청해 타문화권과 교회개척 및 사역에 대해 듣는 특강도 있다. 2010년 5월 중에는 해외 비전트립도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11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02)818-7270-1로 문의하면 된다.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 열려

만민기도원 주관으로,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42일 동안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이복님 원장 인도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 다니엘 철야'는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2009년도 기도제목 마무리와 2010년도 기도제목을 놓고 특별히 기도한다.

밀양만민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았다

밀양은 국내 첫 지교회

1987년 6월 19일,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에 만민중앙교회 첫 번째 국내 지교회로 세워진 밀양만민교회(담임 문태규 목사). 영남의 내륙에 위치한 밀양 지역은 대대로 우상 숭배가 심해 복음의 불모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척박한 땅에 뿌려진 성결 복음이 어느덧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실한 열매를 맺고 있다. 무엇보다 값진 열매는 생명력 있는 말



씀을 통해 진리로 변화된 성도들이다. 밀양만민교회 성도들은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고 응답받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으며, 각종 예배와 매일 밤 올리는 불같은 기

도를 통해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축복받는 간증이 풍성하다. 또한 지역복음화에 열정을 쏟는 살아 있는 교회로 귀감이 되고 있다.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은 밀양만민교회는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11월 1일 주일 오후 2시 30분, 기념예배를 드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성령의 열매 (3)

화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 5:22~23)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좇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애매하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과도 화평해야 하지요. 그럴 때야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영적 권세를 누리고 하늘에서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14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며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할 때는 어떨까요? 화평이 깨어져 시험 환난이 찾아옴으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누구와도 부딪치거나 걸림이 없고 평안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답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므로 담대합니다. 물론 죄의 답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려면 마음의 죄악을 다 버리고

성결을 이루어야 하지요. 설령 현재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열심히 진리를 행하면 됩니다.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때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곧 진리 안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화평하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려서는 안됩니다. 가령, 믿음이 없는 가족과 부딪치니까 명절이나 제사 때 우상 앞에 절하거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될까요? 이는 겉으로 보기에 잠시 화평을 이루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죄의 담을 만들어 화평을 크게 깨뜨린 것이므로 연단과 시험 환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잠 16:7). 내 편에서 진리 안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상대가 악하여 계속 화평을 깬다 해도 끝까지 진리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악이 남아 있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마음, 혈기, 시기, 욕심 등 비진리가 나오지요. 더구나 자기 안에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비슷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두 마음이 싸우므로 곤고하고 심한 마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결단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계속 진리로 행해 나가면 결국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열심히 진리를 좇아 행한다고 하지만 잘못 만들어진 자기 의와 틀로 인해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적인 틀에 매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연단받기 전의 움켜쥔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징계가 올까 두려워서 초조한 마음으로 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진리대로 행치 못하면 무슨 징계를 받게 될까 하고 잔뜩 주눅이 들고 신앙의 정체까지 옵니다. 이럴 때에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사고의 틀

로 인해 자기와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진리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히 자책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내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철저히 낮아질 때 더 높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 인정받지 못해 초조해질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화평도 이루게 하고 영적인 담대함도 주십니다.

셋째,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은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하고, 들레거나 자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 주며, 편벽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는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하게 여길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자신의 믿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맞춰줍니다. 설령 내 의견이 옳더라도 비진리가 아니면 상대에게 따라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무엇보다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평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의와 틀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자란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며 섬길 때야 화평이 이뤄집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도 화평한 사람이라면 사람과도 화평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교만,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의와 틀도 깨뜨렸기 때문에 누구와 걸리거나 다투지도 않지요. 만약 상대가 악하여 화평을 깨려 해도 오히려 섬기고 희생함으로 결국은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신속히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넉넉하고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이 말씀은 10월 25일 저녁예배 말씀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시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 ‘설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속보

중동의 대형 서점에 선보인 한국 목회자의 아랍어판 번역도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간증집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아랍어판이 중동 내 대형 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다. 레바논 최대 서점인 안토인 서점을 비롯 ‘살림’, ‘말리크’, ‘웨이 인’ 서점을 통해 판매 중인 것이다.

이 책자는 세계 최대의 서점인 아마존닷컴을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1987년 4월 17일 한글 초판이 발행된 후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4개 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금융인선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지난 10월 24일 토요일, 우리 교회 제유아실에서 금융인선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가 열렸다.

금융인선교회 회장 송왕근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부회장 조휴용 장로의 대표기도 후, 임학영 목사가 창세기 31장 39-41절을 본문으로 ‘꿈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우리 교회 금융인선교회는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회의 큰 힘이 되기 위해 1995년 10월 창립됐다.

“신종 플루 두렵지 않아요” 만민의 성도들은 굳게 믿고 있다

조선일보 10월 28일자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자가 매일 4200여 명씩 발생하면서 공포감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26일 5명이 사망한 데 이어 27일 4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 이틀 사이 9명의 희생자가 나오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사고와 재앙에서 자칫받을 것을 확실히 믿기에 만민의 성도들은 신종 플루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설령 신종 플루가 틈탤다 해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회개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깨끗이 치료받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수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기도회	9:00 P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열심히 섬기다 보니 ‘왕’ 이 되었습니다

신문 전도, 말씀 퀴즈, 당회장님 저서 읽기로 두각을 나타낸 성도 세 사람의 신앙생활 기록

신문 전도왕 박영화 권사

“한 영혼 전도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최근 청주만민 교회는 전도의 열기로 뜨겁다. 담임 문석규 목사를 비롯해 전 성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국내외

기사 및 간증,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등이 실린 주간지 만민뉴스는 전도의 필수품이다. 이렇다 보니 만민뉴스를 7개월 동안 13만 부 이상을 전한 성도가 있다. 바로 박영화 권사이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전도하던 제가 주의 일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3월 30일부

터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자는 취지로 만민뉴스 돌리기 대회가 진행되었지요. 저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뜨겁게 전도하며 충성해야 하는데 식어진 제 마음을 돌아보며 결단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목자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갖기를 소원했지요. 첫날 만민뉴스를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시간되는 대로 신문을 접고 돌리느라 잠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다 보니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전도될 때마다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부수로 어느새 1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몸도 매우 강건해졌습니다.”



박 권사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대회를 통해 교회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모습에서 행복이 넘친다.

한편, 3등을 달리고 있는 안정애 집사는 우측 편마비로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신문을 접고 장애인 오토바이를 타고서 매주 1만 부씩 만민뉴스를 돌려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당회장님 저서 다독왕 김영선 집사

“책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직접 대화하는 듯한 감동이었습니다”

각 연합회나 선교회에서는 종종 책자 읽기 대회를 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출간한 당회장님 저서 57권을 완독한 성도들도 많다. 당회장님 저서를 통한 영적 지식으로 말씀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재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27가나연합회에서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 대회를 가졌다. 많은 이가 책을 대하며 다시금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그 가운데 완독은 못했지만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책을 읽어 3개월 동안 39권을 읽은 김영선 집사의 간증이 은혜스럽다.

그는 우리 교회 통역부에서 근무하며 해외 선교 사역을 돕고 있다. 대회 기간 동안 해외 출장도 있었지만 출근 버스 안에서, 점심 저녁 식사를 빨리 마치고, 잠자기 전이나 일과 중 틈새 시간을 활용해 당회장님 저서를 읽



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의미를 잘 풀어 기록한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에 빠져 들었다.

“감동 속에 책을 읽으니 마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책 속 인물들과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기록된 부분을 읽을 때 저도 모르게 그분들에게 묻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님에게는 일주야를 바다에서 있을 때 춥지 않았는지, 갈렘 선지자님에게는 어떻게 연로한 나이에도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지, 예수님께는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온 이들에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셔서 깨우쳐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그 여인의 생명까지 구하는 사랑을 베풀실 수 있었는지 등 저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한결같았지요. 오직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당시로 돌아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하며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또한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마음에 다짐했다는 김 집사.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영적 의미를 밝히 깨우쳐분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했다.

말씀 퀴즈왕 신두천 목사

우리 교회는 매주 주보에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읽고 있다. 이는 성도들이 매일 성경 한 절을 암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365일 동안 실린

“말씀 암송은
응답과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암송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져 비진리가 저절로 버려지고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않았다. 8년 만에 대상을 탄 그에게 소감을 물었다.

“7전 8기로 대상을 탔습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에서 문제를 출제해 매년 말씀 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9회째인 말씀퀴즈대회에서는 신두천 목사가 대상을 차지했다.

신 목사는 1998년 3월,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타교회 전도사로서 시무하던 그는 우리 교회로 인도받게 되었고 말씀을 들으며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었다. 평소 말씀 읽기를 즐겨하며 좋은 말씀이 있으면 수첩에 옮겨 적어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있던 그에게 말씀퀴즈 대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매년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는 상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차곡차곡 자신에게 영의 양식이 채워질 때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즐거웠다. 기도할 때 말씀을 떠올려 주시며 성도 심방할 때에도 필요한 말씀을 떠올려 주셨다. 말씀을 읽고

상을 탄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상을 타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기쁘게 합니다. 본선에 올라온 분이라면 그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매년 대회를 치르고 나면 저를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요. 그 열매로 대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 목사는 대학 3학년 때 영혼 구원의 가치성을 절실히 깨우쳐 졸업 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던 그는 지금 우리 교회 중국 대교구에서 헌신하고 있다.

안데스 산맥 구석구석 다니며 “예수 믿으세요”

이재호 목사 (라틴아메리카 만민선교센터 · 페루만민교회)



맥도날드 햄버거나 코카콜라는 각 나라마다 있다. 이처럼 어느 나라, 어느 TV 방송을 통해서든지 당 회장 이재록 목사님 설교를 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오늘도 나는 그날을 위해 힘차게 달린다.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페루 내 안데스 산맥 고산 지역(해발 2000m-5000m 이상) 순회 선교를 다녀왔다. 1년여 동안 기도해 온 라디오 생중계 및 지속적인 방송 협력을 위해서였다. 축산과 농사가 주업인 이들에게 일을 하면서도 청취가 가능한 라디오 선교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은 안데스 산맥 전체를 순회 방문하는 것이었기에 주야간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많았다. 터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따라 높은 산을 구비구비 넘고 돌아서 다른 부락으로 들어가는 코스였다. 버스로 난간도 없는 일차로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그 옆에 펼쳐진 천 길 낭떠러지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주여” 하고 간절한 기도가 나왔다. 길게는 16시간, 짧게는 6시간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고산병으로 숨이 가쁘고 두통과 구토, 온몸이 퉁퉁 붓고 눈이 돌출되는 것 같은 고통이 수시로 엄습해 왔다.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만민의 세계 교구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사역을 진행하였다. 방송 선교 일정은 순탄하였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비해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레기빠의 라디오 페루 비전, 파끄냐의 라디오 오아시스, 꾸스꼬의 라디오 꼬이노냐, 안디왈라의 라디오 페, 우리빠의 라디오 키리오스, 완파 지역의 라디오 아마우파, 까하마르카의 라디오 누에바 비다, 밤마 까르카의 라디오 에벤에셀과 YV, 셀렌딩의 라디오 빠레겐시아, 후안카요의 라디오 마난피알 등 이미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 사역을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났기에 수월하게 방송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들은 우리 교회와 지속적인 선교 협력관계를 요청해 왔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쾌거였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피부에 실감나게 와 닿는 감동의 순간 순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특별한 체험은 힘을 북돋아 주기에 충분했다.

해발 2800미터에 위치한 암보 지역에서 1일 교회 집회를 가졌고, 4800미터 고산지대인 세르디 파스꼬 지역에서 이틀간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부인병, 관절염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었다. 2년 전 이 지역에 왔을 때에는 고산병으로 고생이 심했지만 이번에는 수백명을 일일이 기도해 주었는데도 숨이 전혀 가쁘지 않는 체험도 했다. 선교 일정 내내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대륙을 뒤흔든 쓰촨성 지진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희생된 인명과 실종자까지 8만여 명을 넘었으니 TV 앞에 낯 놓고 앉아 있을 수밖에

를 괴롭하곤 하였다. 내 삶이 새로워진 것은 불과 2년 전인 2007년 지진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 설교가 매우 영성이 깊다는 말을 전

가 생겼다. 어느 날부터인가 손에 나타내기 시작한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이 견잡을 수 없었다. 한의원에서 줄곧 약을 지어 먹고, 손에 약초를 바르는 등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2009년 8월 말, 한국 만민중앙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한다는 지인에게 무안 단물을 부탁하여 한 병을 얻었다. 그동안 무안 단물 치료 사례를 보며 나 역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정성껏 바르고 뿌렸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 아픈 부위가 많이 호전되었다. 나는 너무 신기했고 남편에게 간증했다. “여보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졌어요” 껌충껌충 뛰며 간증하는 나를 보며 남편은 주님께 감사 드린다고 고백했다. 어느 덧, 내 삶에 잊지 못

할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2009년 10월, 만민중앙교회 창립 27주년 행사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재록 목사님을 직접 뵈니 내가 생각하는 대교회 권능의 목회자와는 사뭇 다른 인상이었다. 매우 겸손하고 인자하셨다.

이 교회의 수준 높은 기독교 문화는 익히 알지만 천국을 소재로 한 창립 축하공연은 가히 불가사의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충격이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였다. 어느 새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가슴은 천국 소망으로 벅차올랐다. 아른아

른하던 천국도 확실히 마음에 잡혀졌다. ‘아! 아름다운 저 천국,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리라!’

이 감동이 채 가시기 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물을 예비해 두셨다. 지난 10월 12일, 무안 단물터를 방문해 침수했는데, 조금 남아 있던 손가락 류머티즘성 관절염 증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전에는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웠는데 자유롭게 움직이고 구부러도 전혀 통증이 없다. 큰 권능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드린다. 한국 방문을 통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믿음이다.

“손가락이 움직여요”

무안 단물 치유의 기적 체험한 중국 아줌마

천OO (중국, 심리치료사)
**본인의 신분 보호를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 없었다. 서둘러 의류와 식품, 기타 필요한 물품을 챙겨 현장으로 달려갔다. 애끓는 통곡 소리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모습 ... 간신히 살아남았다 해도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절망감이었다. 이들에게 천국을 전하던 나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마음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나

해 들었다. 평소 말씀에 갈급해 있던 터에 이재록 목사님 저서를 구할 겸 현지 OO 만민교회를 방문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 GCN 방송과 저서를 통해 성경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 심리치료사 입장에서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은 위로의 힘은 물론, 치료의 힘까지 있으니 어떤 심리학자보다 우월했다.

그러던 중 믿음이 자라는 계기



손가락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천OO 성도는 무안 단물을 통해 치료받은 뒤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0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3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회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교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88 삼익 2차 101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73-11 ☎04323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리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74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동 500-5 ☎061652-8311, 010-2278-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천정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0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영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1745-0675, 010-2468-2251
- 영동자성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자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89-26 ☎02965-93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곶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자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포자성전 인천시 서구 미천동 688-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6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자성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49-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자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8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55-4 ☎031835-9103, 016-718-7458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5동 165-1 ☎031840-2806, 019-251-3149